

《한중 지방교류 3》  
**부산광역시의 대중국 교류 현황과  
향후 과제**

작 성 | 부산발전연구원  
장정재 (jangjj@bdi.re.kr)

**목 차**

1. 부산광역시의 대중국 도시교류 현황
2. 부산광역시의 대중국 경제교류 현황
3. 부산-상하이 교류에 대한 부산시민 실태조사
4. 부산광역시의 대중국 교류협력 개선방향 및  
향후 과제

\* 인차이나브리프에서는 <한중 지방교류>시리즈를 통해 지역·도시 차원에서의 한중교류 현황을 담아내고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 부산광역시의 대중국 교류현황 분석을 통한 향후 개선방향 및 당면과제에 대해 고찰함
- 한중수교 이후 광역자치단체의 대중국 도시교류로는 부산이 가장 빠르게 시작할 정도로 민첩했으나 실효성 있는 성과는 미흡함
- 중국은 부산의 최대 교역국가로 부상했으나 무역수지는 계속해서 적자이며, 다행스럽게도 부산의 대 중국 수출 주력상품이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증가하고 있음
- 부산시는 대중국 교류과제로 “차별화된 전략수립”, “기업 및 도시간 협력촉진”, “중국 및 화교자본 유치” 등을 고려하고 있음

## 1. 부산광역시의 대중국 도시교류 현황

### 1)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현황

#### ■ 부산의 대외 자매·우호협력도시 현황

- 부산시는 2014년 3월말 현재 23개국 26개 도시들과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음
  - 타이완 카오슝(1966.6.30)을 처음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미얀마 양곤시(2013.1.14)와 자매결연을 맺음
- 부산시는 2014년 3월말 현재 3개국 7개 도시들과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고 있음
  - 중국 선전시(2007.5.17)를 처음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일본 나가사키시(2014.3.25)와 우호협력도시 결연을 맺음
- 부산시는 중국 상하이시와 자매도시, 선전시·톈진시·충칭시·베이징시와는 우호협력도시관계를 맺음으로써 대중국 관계 형성과 교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 1993년 부산-상하이 자매도시 결연

- 1993년 8월 24일 상하이시에서 부산-상하이 자매결연서 교환으로, 부산으로서는 7번째, 상하이로서는 25번째 국제교류 도시관계 형성
  - 부산은 2013년 1월 현재 23개국 2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으며, 상하이는 2013년 8월 현재 52개국 73개 도시와 우호도시 협력 관계를 맺음<sup>1)</sup>
- 한중수교 이후 광역자치단체의 대중국 도시교류로는 부산이 가장 빠름<sup>2)</sup>
  - 부산은 가장 선도적으로 자매도시 결연을 했으나 실효성 있는 성과는 미흡
  - 경상남도-산둥성은 1993년 9월 8일, 경기도-랴오닝은 1993년 10월 4일, 서울-베이징은 1993년 10월 23일 자매결연을 함
- 부산시 산하 자치구 6곳도 상하이 자치구들과 자매결연·우호협력 관계를 수립

표1 |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와 상하이의 교류현황

부산 자치구	상하이 자치구	결연일자
영도구	상하이 황푸취(上海 黄浦区)	1996.3.5
동래구	상하이 홍커우취(上海 虹口区)	1997.5.23
연제구	상하이 황푸취(上海 黄浦区)	2004.10.12
금정구	상하이 푸터취(上海 普陀区)	2005.6.1
사하구	상하이 자베이취(上海 闸北区)	2008.9.23
동구	상하이 쉬웨이시(上海 徐汇市)	2008.11.26

출처 : 행정안전부(201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현황'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1) 상하이가 체결한 우호도시 중 58개는 시(市)급 자매도시, 5개는 우호교류도시, 10개는 자치구급 우호도시로 구분. 상하이는 88개국 377개 민간조직과도 우호 관계

2) 가장 빠른 중국 도시교류는 1992년 11월 전남 목포시와 장쑤성 렴윈강(连云港)시의 자매결연

## 2)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성과

### ■ 상하이와의 교류활동

- 자매결연 이후 경제·금융·항만·문화·교육·체육·관광·건설·교통·에너지·치안·법원·청소년·적십자사 등 다방면에서 양 도시의 인적교류가 활발
  - 2001~ 2012년 상하이의 부산 방문은 79회, 부산시의 상하이 방문은 90회로 집계
  - 부산시는 상하이와 자매결연 후 무역사무소 개설(1997년 7월)·예술단 공연·기념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표2 | 부산시의 對상하이 교류 현황

년도	소계	내한	방문	행정	경제	관광	문화	체육	교육
1998	10	8	2	7	1	1	-	-	1
1999	10	6	4	6	-	2	1	1	-
2000	9	6	3	4	2	-	2	1	-
2001	18	6	12	13	2	1	2	-	-
2002	16	7	9	7	2	4	3	-	-
2003	13	5	8	8	5	-	-	-	-
2004	17	9	8	9	1	1	4	-	2
2005	9	5	4	5	2	-	1	-	1
2006	14	7	7	11	-	1	2	-	-
2007	6	4	2	4	-	1	1	-	-
2008	4	2	2	2	-	-	2	-	-
2009	20	8	12	12	5	-	1	1	1
2010	14	4	10	9	2	1	2	-	-
2011	7	3	4	5	1	-	1	-	-
합계	167	80	87	102	23	12	22	3	5

주 : 부산시의 ‘부산-상하이 국제교류일지’에 근거하여, 교류항목 재정리

출처 :부산시(2012)

- 상하이는 2000년 6월 부산 차이나타운에 아치형 ‘상해문(上海門)’을 상징물로 건립
- 지난 20년간 상하이의 성장은 부산을 압도해서 중국경제를 선도하는 핵심지역을 넘어 세계 유력 도시로 성장

- 중국사회과학원의 '2011~2012년 전세계도시경쟁력보고서(全球城市竞争力报告)'에 따르면 상하이는 중국 도시 중 홍콩(9위) 다음으로 높은 36위
- 상하이의 인구는 1.7배, 지역총생산량은 12.6배, 1인당평균총생산량은 7.5배 증가
- 같은 시기 부산은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총생산량은 3.3배, 1인당평균총생산량은 3.7배 증가

표3 | 부산과 상하이의 인구 및 경제 지표 변화

구분	상하이				부산			
	단위	1993년	2011년	증감(배)	단위	1993년	2011년	증감(배)
면적	km2	6,340.5	6,340.5	-	km2	528.9	768.4	1.5
인구	만명	1,381.0'	2,347.4''	1.7	만명	386.8	358.6	-7.3%
지역총생산량	억위안	1,519.2	19,195.7	12.6	억원	18,749.3	62,692.0	3.3
1인당평균총생산량	위안	11,061	82,560	7.5	천원	4,951	18,095.5	3.7
수출	억달러	73.8	2,097.9	28.4	억달러	4.8'	14.5	3.0
수입	억달러	54.5	2,276.5	41.8	억달러	4.0'	14.7	3.7

주: '부산의 수출입액은 1993년이 아닌 2000년 자료, "상하이 인구는 상주인구 기준

출처: 상하이통계국(www.stats-sh.gov.cn), 통계청(면적·인구), 부산경제진흥원(지역총생산량), 한국무역협회(수출입)

## ■ 우호도시들과의 교류활동

- 텐진시는 부산과 교류 이래 상호방문 8회가 이뤄졌는데, 2007년 10월에는 텐진시 파이상룽(戴相龙) 시장이 직접 부산을 방문
- 충청시와 2010년 우호교류 관계를 맺은 부산시는 지금까지 13차례 교환방문 하는 등 상호간 실익을 줄 수 있는 자동차, 문화, 관광, 항만·물류, 경제 등 분야에서의 교류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선전에서 개최된 세계문화산업박람회에 부산시가 참석하고 박람회, 관광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교류성과 없이 상호 방문의 행정교류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

표4 | 부산의 우호도시 교류현황

중국도시	구분	주요 추진 내용	결연일자
텐진시 (우호교류)	내방	· 텐진시, 부산 방문 4회 · 텐진시장 부산 방문(2007.10)	1993.8.24
	방문	· 부산시, 텐진 방문 4회 · 텐진 국제자매도시 컨퍼런스 참가(2010.9) ·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물류회의 참가(2010.11)	
충칭시 (우호교류)	내방	· 충칭시, 부산 방문 7회 · 부산-후쿠오카 공동 관광설명회 개최 (2010.12) · 자매도시 관계자 초청 국제연수 실시(2011.6)	2010.12.2
	방문	· 부산시, 충칭 방문 6회	
선전시 (우호교류)	내방	· 선전시, 부산 방문 7회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참가(2008.10) · 선전시, 대표단 부산방문(2012.3)	2007.5.17
	방문	· 부산시, 선전 방문 5회 · 부산관광설명회 개최(2005.4) · 국제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박람회 참가(2010.4)	
베이징시 (우호교류)	내방	· 부산시 중국 내 자매우호협력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 청소년&대학생 민간교류 · 한중일 3국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관계 확대 기반 구축	2013.8.14
	방문	· 산림공원분야 업무 활성화 · 베이징시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업무지원	

주: 베이징시와의 교류는 2014년 추진계획임

출처: 행정안전부(201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현황(지자체별)’

## 2. 부산광역시의 대중국 경제교류 현황

### 1) 부산시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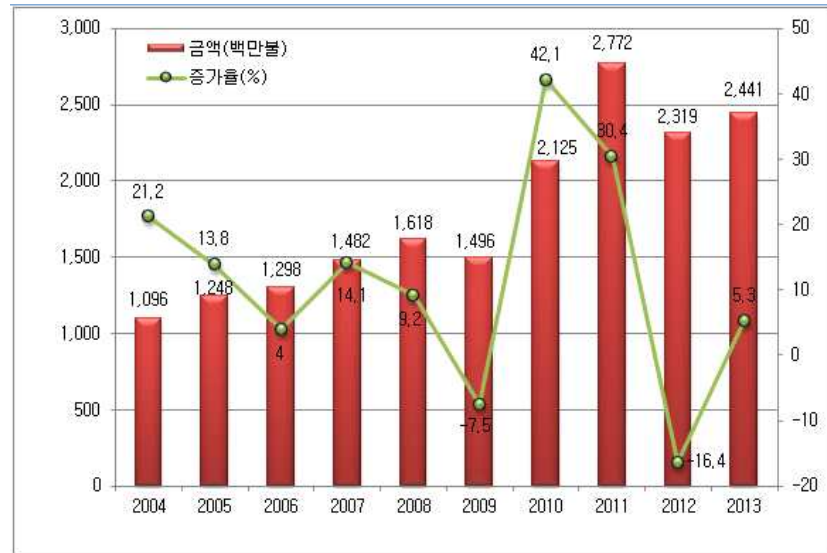
#### ■ 부산시 대중국 수출

- 2013년 부산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63억불(수출 24억불, 수입 39억

불)로 전체의 23.6% 비중

- 중국은 부산의 최대 교역국가로 부상했으나 무역수지는 계속해서 적자

그림1 | 부산시 대중국 수출 총액 및 증가 추이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부산의 대 중국 수출 주력 상품은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철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
  - 2013년 현재 부산의 대 중국 수출 주력 품목은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전기기와 그 부분품” 등 순으로 전체 수출 중 53.9%를 차지

표5 | 부산 대중국 수출 상위 10개 품목 (2013년)

HS 코드	품목명	수출 (백만불)	비중 (%)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732	30.0
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367	15.0
85	전기기와 그 부분품	217	8.9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213	8,7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95	8,0
73	철강의 제품	129	5,3
72	철강	90	3,7
64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78	3,2
32	유연·염색엑스·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안료, 페인트, 퍼티, 잉크	41	1,7
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부분품과 부속품	38	1,5
기타		341	14,0
총		2,441	100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 부산시 대중국 수입

- 부산의 대 중국 수입은 저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수입되고 있음
- 2013년 부산의 중국으로 부터 수입액은 3,870백만 불로, 감소 추세에 있음

그림2 | 부산시 대중국 수출 총액 및 증가 추이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부산의 대 중국 수입 상위 품목을 보면 “철강”, “철강의 제품”,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수입이 전체의 50.4%를 차지

표6 | 부산 대중국 수입 상위 10개 품목 (2013년)

HS 코드	품목명	수출 (백만불)	비중 (%)
72	철강	1,066	27.5
73	철강의 제품	387	10.0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350	9.0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324	8.4
84	원자로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283	7.3
64	신발류 · 모자류 · 산류 · 지팡이 · 시트스틱 ·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207	5.4
29	유기화합품	103	2.7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76	2.0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70	1.8
07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68	1.7
기타		936	24.2
총		3,870	100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 부산시의 대중국 투자

### ■ 부산시 대중국 지역별 투자

- 한중 수교 원년에 부산의 對중국 투자금액은 7백만 달러로 출발하여, 지난 22년간 부산의 중국에 대한 총 투자액은 16억 달러
  - 부산의 대중국 투자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금액의 3% 수준이며, 서울 · 경기도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음
  - 부산은 산둥성 · 랴오닝성 · 장쑤성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는데, 산둥성 · 랴오닝성에 대한 투자는 소규모 투자 중심이며 장쑤성 · 베이징시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많음

표7 | 부산의 중국 지역별 투자 추이 (2009-2013) (투자금액순, 천달러)

순위	2009	2010	2011	2012	2013
1	산둥성	산둥성	산둥성	장쑤성	산둥성
	86,710	102,090	61,359	32,995	22,790
2	랴오닝성	장쑤성	랴오닝성	산둥성	광둥성
	28,232	25,274	60,282	25,919	11,848
3	장쑤성	랴오닝성	장시성	랴오닝성	장쑤성
	14,715	16,192	28,391	12,063	8,544
4	상하이시	구이저우성	자치구	자치구	상하이시
	6,533	9,000	6,700	5,000	7,691
5	톈진시	상하이시	베이징시	베이징시	랴오닝성
	4,560	4,658	2,500	4,300	6,482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www.keri.koreaexim.go.kr](http://www.keri.koreaexim.go.kr))

- 부산의 대중국 업종별 투자는 제조업(95.4%)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3.9%)

표8 | 부산의 대중국 업종별 투자액 (2012-2013)

업종대분류	2012년			2013년		
	신규 법인	누적	투자금액 (천달러)	신규 법인	누적	투자금액 (천달러)
제조업	16	49	83,597	12	43	60,417
건설업	0	2	300	0	0	30
도매 및 소매업	9	12	1,170	15	12	2,453
숙박 및 음식점업	2	2	120	3	3	34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	0	0	0	3	61
농업, 임업 및 어업	1	1	407	0	0	0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	2	410	0	0	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	1	61	0	0	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	1	200	0	0	0
교육 서비스업	1	1	100	0	0	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1	393	0	0	0
<b>총</b>	<b>33</b>	<b>72</b>	<b>86,758</b>	<b>30</b>	<b>61</b>	<b>63,309</b>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www.keri.koreaexim.go.kr)

- 지난 20년간 부산의 對中 투자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89%가 제조업, 6%가 도소매업, 1%가 운수업, 4%가 기타 분야에 투자하고 있음
  - 부산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 활용보다는 저임금을 활용한 비용절감을 더 큰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
  - 부산기업들은 제3국 수출을 목표로 하거나 바이어의 요구로 중국 투자를 실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합작보다는 단독 투자 형태를 띄고 있음
  - 중국진출 부산기업은 상하이·산둥성·랴오닝성 등 중국 동부해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150여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그림3 | 부산지역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과 투자금액



주 : 1990년 ~ 2011년 까지 실제투자금액 누적기준의 상위 8개 지역, 현재 영업중인 기업체수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 부산시 중국 투자과정

- 한중 수교 이후 부산기업은 신발업종을 중심으로 중국 칭다오에 생산공장 설립이 본격화
  - 당시 삼호산업·세원 등 4개 업체가 지모시(即墨市)에 1천 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부산신발타운’을 조성
  - 협력업체(하청업체)들은 모기업 또는 바이어의 이전 결정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동반 진출한 경우가 다수

그림4 | 부산공업원이 위치한 라이시의 장산진(姜山鎮)



출처 : 장산진(姜山鎮) 인민정부

- 2003년 산둥성 라이시(萊西市)에 부산전용 공단이 조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부산 기업들의 중국투자가 더욱 활발히 진행

- 칭다오 공항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라이시 장산진(姜山鎮)에, 2백여만㎡(61만평)의 부지에 부산공업원이 조성
- 입주 당시에는 ‘토지의 50년 무상임대’, ‘5년3감반(5年3減半 3))의 기업소득세 우대’, ‘상수도세와 전기요금 할인’, ‘수도료와 전기료의 최저요금 적용’ 등의 우대혜택
- 부산·경남에서 태광(신발)·넥센(타이어)을 중심으로 협력업체들과 계열사들이 10여개 입주 해 있음

### 3. 부산-상하이 교류에 대한 부산시민 실태조사<sup>4)</sup>

#### 1) 부산시민의 상하이 교류에 대한 인지도와 평가

##### ■ 상하이와의 교류 인지도

- 부산과 상하이가 자매도시 관계라는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음(78.2%)”이 알고 “있음(21.8%)”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이 상하이와 교류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음(84.2%)”이 “알고 있음(15.8%)” 보다 높게 나타남
  - 부산이 상하이와 교류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인지 경로는 인터넷이 4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문·방송 28.6%, 기타 12.2%, 부산시 홍보물 10.2%, 주변인의 소개 8.2% 순으로 조사됨
- 부산이 상하이와 교류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

3) 이익발생 후 5년간 법인세 면제를 하며, 다시 3년간 50%의 법인세를 감세한다.

4) 2012년도 부산발전연구원의 현안연구(중국 상하이 자매도시와 부산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장정재 외) 내용 중 일부를 소개

답자의 부산과 상하이와의 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잘한다’ 24.4%(아주 잘하고 있다 0.0% + 잘하고 있다 24.4%), ‘보통’ 53.3%, ‘못한다’ 22.2%(잘못하고 있다 20.0% + 아주 못하고 있다 2.2%)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

- 부산과 상하이시와의 교류에 대한 부정 평가자의 부산과 상하이시와의 교류성고가 부정적인 원인에 대해 양도시 상호교류 행사에 대한 홍보 부족 25.0%(5건), 일회성 행사가 많고, 정기적인 행사 부족 25.0%(5건), 부산시가 상하이시에 대해 비적극적 20.0%(4건), 양도시 시민들의 참여활동이 매우 적음 20.0%(4건), 상하이시가 부산시에 대해 비적극적(1건), 지리적 접근성이 나빠서 5.0%(1건) 순으로 조사됨

## ■ 상하이와의 우호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부산시민들은 부산의 우호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부족’, ‘행정교류에 편중’, ‘프로그램이 다채롭지 못함’, ‘시민참여 기회가 적음’, ‘형식적인 행사’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
- 부산시민들은 부산-상하이 우호협력 프로그램으로 ‘홈스테이 확대’, ‘교환학생 확대’, ‘관광지 입장료 및 숙박 할인’, ‘학술예술 공연 교류 확대’, ‘지역인재의 기업인턴쉽 교류’등을 제안

## 2) 전문가의 상하이 교류에 대한 평가와 제안

### ■ 상하이와의 교류에 대한 평가

- 전문가 집단은 부산의 상하이시 교류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57%)”으로 평가
- 부산과 상하이시와의 교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응답자 14명

(잘못하고 있다 + 아주 못하고 있다)의 부정적인 원인 1순위 응답은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부족(28.6%)’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9 | 교류 성과에 부정적인 이유

항목	1순위		2순위		다중응답 종합	
	빈도	%	빈도	%	빈도	%
언어 등 의사소통 어려움	1	7.1			1	3.6
부산시가 상하이시에 대해 비적극적	2	14.3	2	14.3	4	14.3
상하이시가 부산시에 대해 비적극적	3	21.4	2	14.3	5	17.9
양도시 상호교류 행사에 대한 홍보 부족	1	7.1	1	7.1	2	7.1
공무원에 편중된 행사 중심			1	7.1	1	3.6
일회성 행사가 많고, 정기적인 행사 부족	3	21.4	5	35.7	8	28.6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부족	4	28.6	3	21.4	7	25.0
합계	14	100.0	14	100.0	28	100.0

## ■ 상하이와의 우호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 부산-상하이 우호협력 신규사업으로 “양도시 홈스테이를 대학생들까지 확대”, “양도시를 대표하는 프로스포츠 교류전 개최”, “무역타워(Trade Tower)와 같은 부동산개발 공동추진”, “상대도시에 〈도시·기업 홍보관〉 상설 운영”, “청년예술가 및 대학생 문화예술 공연 교류 확대”, “상대도시에 대한 〈문화주간 지정〉”, “양도시의 영화산업 및 음식문화 교류전”, “분야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 등이 제안 됨
- 부산-상하이 경제교류 활성화와 관련한 신규사업의 필요성(매우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하다)은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
- 국제교류 확대와 관련한 신규사업의 필요성(매우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하다)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

그림5 | 부산-상하이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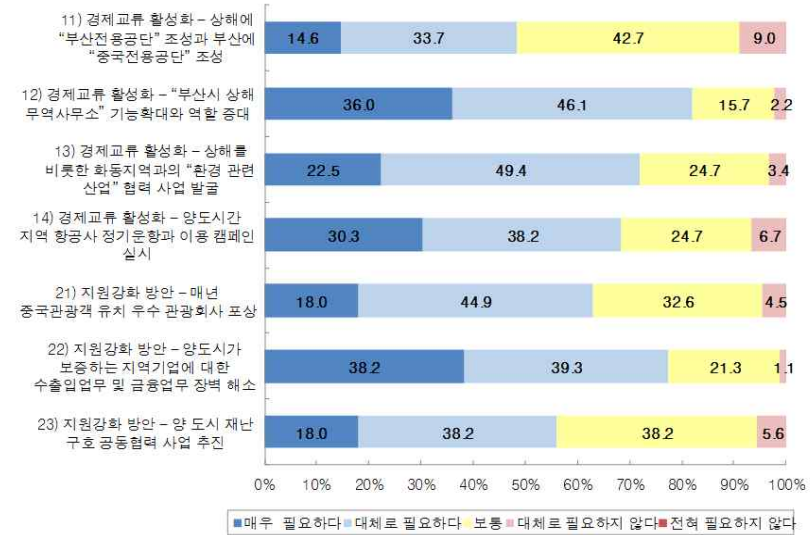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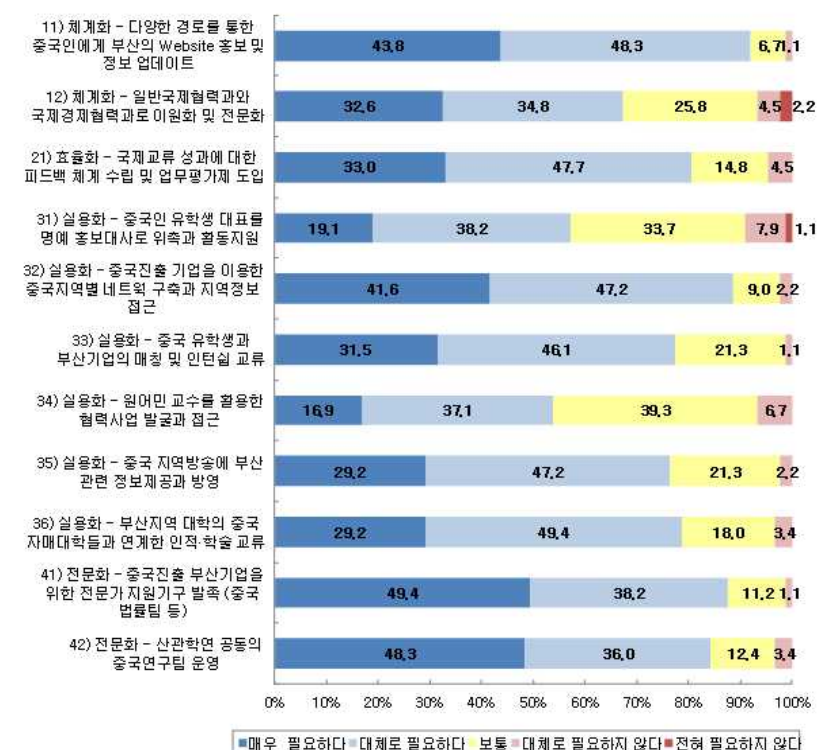


그림6 | 국제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필요성 인식





## 4. 부산광역시의 대중국 교류협력 개선 방향 및 향후 과제

### 1) 부산시의 대중국 교류협력 개선방향

#### ■ 운영상의 개선방향

- 부산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우호협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성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일회성 행사로 끝나기 보다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활동 필요
- 홈스테이 · 청소년 교류 활동을 대학생 · 일반시민들에게 까지 확대
- 보다 적극적인 중국현지 전시회 및 투자설명회 활동과 부산기업들에 대한 해외마케팅을 폭넓게 지원

#### ■ 전략적 운용방향

- 경제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의 민간부문이 주도가 되어 참여하는 산관학 교류가 더 필요
- 중국 도시간 교류에 대한 매뉴얼 또는 지자체 차원의 조례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교류지역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지속적 연구 필요
- 중국 산업정책에 대한 분석과 이에 부합하는 산업 발굴로 특화된 교류 활성화 도모
  - 중국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 제고를 통해 저탄소 · 녹색 경제를

발전시켜 친환경·자원 절약형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환경산업이 주목받고 있음

- 현재 자매·우호협력 도시 외에 부산에 유리한 중국도시 발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

## 2) 부산시의 대중국 교류 향후 과제

### ■ 차별화된 교류전략 수립

- 자매도시 상하이의 발전방향을 고려한 교류방향 설정과 접근 전략이 필요
  - 상하이는 4대 허브(국제경제허브·국제금융허브·국제물류허브·국제무역허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산의 연관 산업 발굴 필요
- 도시교류의 광범위한 확대보다는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과 지속적인 교류가 중요
  - 도시교류가 인적교류, 이벤트성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단체장의 의지와 비전이 명확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재정립·제시가 필요
  - 상대도시에 대한 정보수집·상호보완성 여부·비교우위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도시교류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자체 차원의 조례를 마련해 효율적인 관리와 전략적 도시 선정이 필요

### ■ 기업 및 도시 간 협력 촉진

- 중국기업들의 후속 사업 확대를 위해 해운대 엘시티 시공이 성공적

으로 완료되도록 지원

-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 시공사로 ‘중국건축공정총공사(中國建築工程總公司·CSCEC)’가 선정됐는데, 중국 최초의 한국투자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 중국 국영건설기업(50여곳), 중국투자공사(中國投資公司·CIC),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 중국건축업협회(中國建築業協會) 등과 관계를 개선
- 중국자본 및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부산 공식 블로그(시나닷컴·163닷컴·바이두닷컴), 웨이보(SNS) 운영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강화
    - 2012년 기준으로 인터넷 가입자는 5억6,400만 명으로 도시 보급률은 72%를 넘어섬
    - 중국 인터넷 포털사이트·중국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부산 정보 접근이 어렵고 자료도 업데이트가 필요
  - 기업 및 도시 간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부산시 사업으로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중국관광객의 불거리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도 활용이 가능
    - 중국건설업체가 주도하는 시설물 완공을 통해 중국인 특유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불거리와 관광명소로 활용
    - 1969년 현대건설은 미국 알래스카의 허리케인 브리지 공사를 수주했는데, 현재 한국관광객들의 명소로 자리 잡음

## ■ 중국 및 화교자본 유치

- 한국에 투자 진출한 중국기업들에 대한 자문을 통해 중국기업들을 위한 부산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장기전략 수립이 필요
- 최근 중국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중국기업 전용단지” 조성을 통한 투자 플랫폼 확보
  - 이전의 중국 해외투자는 개별 기업 방식이었으나 지금은 대기업

중심의 공업단지 조성을 통한 연합방식으로 추진

- 직접 분양보다는 중국투자자를 통한 독점적 운영권 제공이 확실한 추진력이 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중국자본이 동시 유입되는 효과도 기대
- 중국기업 전용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관세·면세·외환거래 자유·무비자 혜택이 필요

- 중국관광객의 카지노·쇼핑·휴양 심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부산이 천혜의 해양관광지라는 조건을 적극 활용하는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

#### 참고자료

장정재(2012), “중국 진출 부산기업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 BDI 포커스 160호  
장정재·금성근(2012), “부산기업의 중국진출 현황과 대응방안”, 부산발전연구원 현안연구  
부산발전연구원(2012), “부산의 차이나 드라이브 전략”, 한국학술정보  
장정재·황영우·윤지영(2012), “중국 상하이 자매도시와 부산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현안연구  
장정재(2013), “부산-상하이 교류 20년, 성과와 향후 과제”, BDI 포커스 215호  
장정재·황영순(2013),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국자본 유치방안”, 부산발전연구원 현안연구  
장정재(2014), “중국 해외투자 급증과 부산유치 방안”, BDI 포커스 237호